

변화의 의미를 바로 알고 대처하자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새해가 시작되어서도 온통 IMF가 화제의 중심이다. 호랑이해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IMF로 온 국민이 IMF 공포에 살고 있다.

오늘 신문에 보니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이 IMF 프로그램대로 말 잘듣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그 옆에는 IMF의 칸드쉬 총재가 팔장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이 실려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수하르토 대통령도 IMF 앞에서는 역시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칸드쉬 총재를 칸드쉬 총독으로 부른다. 50년만에 관권 개입없이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를 하였지만 대통령당선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칸드쉬 총재이다. 그가 한국을 움직이고 그가 아시아를 주무르고 있다. 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돈이 세계를 움직인다. 돈이 회사를 부도나게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양축가들이 가축을 굶기게도 하고 사료를 구입하게도 한다.

달러의 이러한 위력 때문에 달러를 구하기 위

해 혈안이 되어 한해가 시작되었고, 한해를 보낼 것이다. 달러의 기본 단위는 1\$이다. 1\$짜리 지폐에는 맘몬신(물질의 신) 제단이 그려져 있다. 맘몬신은 인간에게 향락·퇴폐·사치를 주지만 끝에는 생명을 바치게 한다. 때문에 맘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간을 제물로 바친다. 돈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시장은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이 지배한다. 좀 힘이 있는 사료공장이 돈을 주지 않으면 사료공급을 중단한다. 좀 더 힘이 있는 은행은 사료공장에 돈이 없으면 신용장 개설도 안해준다. 돈이 기업을 죽이고 살린다.

최근 돈을 다루는 재경원이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면세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사료값이 약 5.8%가 인상되게 된다.

시행 6개월만에 영세율 적용이 흔들리고 있다. 거의 모든 축산물에 수입개방된 상태에서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을 올린다는 것은 수출국과의 경쟁을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축산업을 죽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축산업을 제물로 바치면 누가 기뻐하겠는가? 축산물

수출국이 아니겠는가? 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축산업을 살리는 것이라면 이번 부가세 영세율 철폐는 축산업을 잡아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유태인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글을 배울때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이었다” 이것부터 가르친다고 한다. 그들이 노예이었으나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2천년간 오늘은 나라가 없지만 내년에는 나라를 찾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결국은 나라를 되찾았다.

이제 우리는 60년대 힘들고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90년대 IMF 이전의 수준으로 재기하는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이 없으면 이를 수가 없다. 16일자 뉴욕특파원이 보내온 기사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월가에 가서 ‘한국이 IMF체제를 빨리 졸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 사람들이 ‘한국은 재경원 장관을 수입해서 고용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제 양축농가는 농장에서 사양관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환율을 걱정하게 된다. 환율이 오르면 사료값 등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걱정이고, 환율이 내리면 수입 돼지고기가 몰려올까 걱정으로 잠 못 이룬다. 국민학교때 배운 우산장사와 나막신장사 아들 형제를 둔 아버지 이야기 생각한다. 환율이 오르면 돼지고기 수입이 안되어 좋고 환율이 떨어지면 사료값 등 생산비가 하락해서 좋다고 낙천적으로 생각하자.

프로농구 등 스포츠나 3D업종만 용병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을 수입하라는 주문이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양축농가는 농장에서 사양관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환율을 걱정하게 된다. 환율이 오르면 사료값 등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걱정이고, 환율이 내리면 수입 돼지고기가 몰려올까 걱정으로 잠 못 이룬다.

국민학교때 배운 우산장사와 나막신장사 아들 형제를 둔 아

버지 이야기가 생각한다.

환율이 오르면 돼지고기 수입이 안되어 좋고, 환율이 떨어지면 사료값 등 생산비가 하락해서 좋다고 낙천적으로 생각하자.

다만 정책 입안자는 환율 1,000대 1부터 2,000대 1까지 단계별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IMF에 구정물 양돈으로, 또는 음식물찌꺼기 양돈으로 대응하면 되는 듯한 최근 매스컴의 보도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養豚**